

'USB-C 충전·티타늄 바디' 채택... 전 모델 가격 동결

‘다이나믹 아일랜드’ 전체 적용
프로맥스 256GB 모델 1199달러
韓 3차 출시국 전망... 일정 미정

“아이폰15는 지금까지 제품 중 가장 혁신적으로 강력한 스마트폰이라고 확신한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1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애플파크에서 열린 아이폰15 공개 행사에서 한 말이다. 하지만 팀 쿡 CEO가 말한 ‘혁신’ 보다 주목받은 것은 여전히 ‘급나누기’와 ‘가격 동결’이었다.

◆기본·플러스·프로·프로맥스 4종

애플의 이번 아이폰15 시리즈는 전작과 마찬가지로 ▲6.1인치형(15.4cm) 기본 모델 ▲6.7인치형(17.0cm) 플러스 모델 ▲6.1인치형 프로 모델 ▲6.7인치형 프로맥스 모델 등 총 4종으로 출시됐으며, 새로운 최상위 모델로 나올 가능성이 접쳐졌던 ‘울트라맥스 모델’은 나오지 않았다. 색상은 핑크, 옐로, 그린, 블루, 블랙 다섯 가지로 구성됐다.

전체적으로 눈에 띄는 변화는 상단이 움푹 파여 ‘M자 탈모’를 연상하게 하는 ‘노치 디자인’ 대신 전 모델에 ‘다이나믹 아일랜드(Dynamic Island)’를 적용했다는 점이다. 전작인 아이폰14에서는 프로 모델에서만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사용할 수 있었다.

또한 물리 버튼이었던 음소거 스위치를 ‘동작 버튼’으로 대체했다. 동작 버튼을 활용하면 카메라·손전등을 켜거나 음성 메모, 집중 모드, 번역, 확대기와 같은 기능들을 단축키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발표에서 눈길을 끈 부분은 애



팀 쿡 애플 CEO가 12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 있는 애플파크에서 애플의 신제품 발표 행사 ‘원더리스트’ 무대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플이 ‘라이트닝 포트’ 대신 이번 신제품부터 ‘USB-C’ 타입 충전 단자를 전 기종에 채택한 부분이다. 애플은 “USB-C가 표준 모델이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이 2024년부터 유럽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자기기에 USB-C를 의무화하도록 한 영향이 크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소비자로서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라이트닝 포트·케이블은 아이폰을 비롯해 일부 애플 제품에서만 사용되었던지라 삼성전자 비롯한 다른 전자제품과 호환해 사용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전 모델이 맥세이프 무선 충전을 지원하며 추후 Qi2 무선 충전기도 지원할 예정이다.

◆‘급나누기’ 전략 여전

그간 업계에선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애플이 아이폰15를 시리즈 가격을 100달러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해당 예측은 애플은 전 모델의 가격을 동결하면서 완전히 빗나



12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 있는 애플파크에서 애플의 신제품 발표 행사 ‘원더리스트’가 열려 아이폰15 프로가 소개되고 있다. /뉴시스

갔다. 애플은 ▲기본 모델 799달러(128GB)~ ▲플러스 899달러(128GB)~ ▲프로 999달러(128GB)~ ▲프로맥스 1199달러(256GB)~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아이폰14와 같은 가격대다.

다만 최고급 모델인 프로맥스는 128기가바이트(GB) 용량을 없애고 256GB부터 출시해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피하는 전략을 택했다.

애플은 아이폰14프로와 프로맥스에만 들어간 A16 바이오닉 칩을 아이폰15 일반과 플러스 모델에 넣으며 성능을 높였지만 ‘급나누기’ 전략은 이어갔다. 아이폰15 프로에는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 AP인 A17 프로 반도체를 탑재했다. A17프로는 3나노미터(1nm·10억분의 1m) 공정 기반으로 만든 애플의 최초 칩으로 저전력으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외관적인 부분에서는 프로와 프로맥스에만 기존 스테인리스 스틸 바디를 티타늄으로 변경하며 기기 무게를 덜어

내며 내구성을 강화했다.

애플은 “우주선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이 프리미엄 합금은 어느 금속에 견주어도 가장 높은 ‘비강도’를 자랑한다”며 “이로써 애플 사상 가장 가벼운

라인업이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기본 모델에는 4800만화소 메인 카메라를 장착했지만, 15프로에는 3배줌을, 15프로맥스에는 120mm 초점거리의 5배 광학줌을 채택해 카메라 성능을 끌어 올렸다.

◆“그래서, 한국 출시는 언제?”

이번에도 한국은 1·2차 출시국에서 빠졌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일본 등 4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의 고객은 15일 오전 5시(태평양표준시)부터 아이폰15시리즈를 사전 주문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매장 판매는 22일 금요일부터 시작된다.

2차 출시국으로는 마카오, 말레이시아, 튀르키예, 베트남 및 기타 17개 국가 및 지역 등이 있으며 오는 29일부터 구매 가능하다. 한국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3차 출시국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출시일은 미정인 상태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아이폰15와 아이폰15 Plus는 블랙 블루 그린 옐로 핑크 색상으로 출시된다. /애플

사라진 ‘프로맥스 128GB’ 모델 프리미엄 ‘급 나누기’ 전략 뚜렷

특정 모델 강요로 가격인상 효과
시장 평가 냉혹... ‘혁신 없어’

애플은 아이폰15를 공개하며 ‘가장 혁신적이고 강력한 스마트폰’이라고 자신했지만 시장의 평가는 냉혹했다. 이번 아이폰15에서는 기술 혁신 대신 애플이 인식하는 다양한 문제들과 해결을 위한 방책만이 라인업에서 더 뚜렷하게 보인다는 평가다. 길어진 스마트폰 교

체주기에 대항하기 위한 프로맥스 모델의 재편이 그것이다.

애플은 1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스티브 잡스홀에서 신제품 발표회 ‘원더리스트’에서 아이폰15 시리즈를 공개했다. 애플은 이번 15시리즈 가격을 동결했으나 특정 모델을 없애므로써 가격 인상 효과를 유도했다. ▲기본 모델 799달러(128GB)~ ▲플러스 899달러(128GB)~ ▲프로 999달러(128GB)~ ▲프로맥스 1199달러(256GB)~ 로 책정했다. 대신 프로맥스 128Gb 모델을 없앴다. 수요도가 높은 미니와 새롭게 출시할 것으로 기대된 ‘울트라’는 이번 라인업에 들지 못했다.

지난 8월 미국시장조사기관 옴니아의 자료에 따르면 애플 아이폰14 프로맥스는 올 상반기 2650만대 판매고를 올려 글로벌 판매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아이폰14 프로로 2100만대, 3위는 아이폰14 기본 모델 1650만대 순이었다. 최고가 모델을 최저가 모델보다 1000만 대 더 팔았다. 애플은 2018년부터 기본 모델에 프리미엄 모델을 추가

하는 전략을 썼다.

아이폰XS부터 대형 모델인 플러스를 맥스로 바꾸고 고성능화 했다. 다음해 아이폰11에서 기본 모델에 맥스의 이름을 다시 바꿔 프로, 프로맥스 라인업을 냈고 지난해 기본모델에 대형화면을 더한 플러스를 추가했다. 2020년, 2021년 2년 간 미니 모델을 추가하고 호응을 얻기도 했지만 지난해부터 내지 않고 있다. 기본 모델에서 기능을 축소한 저가형 모델을 내지 않고 대신 기능을 추가한 고가형 모델만 시장에 선보이며 프리미엄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스마트폰 시장의 프리미엄화는 가속화하는 추세지만 동시에 자가당착에 빠진 상황이다. 프리미엄화 한 스마트폰은 여전히 높은 수요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고객의 스마트폰 교체 주기를 장기화함으로써 전체 시장 수요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다. 본격적으로 스마트폰 시장 프리미엄화가 시작된 2018년 스마트폰 교체주기는 30개월을 넘어섰고 급기야 올해는 43개월을 기록했다.



애플 스마트폰 시리즈 아이폰15가 출시된 13일 서울 중구의 한 현대전화 대리점 앞에 아이폰15 사전예약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지난해 카운트포인트 리서치는 ‘스마트폰 마켓 아웃룩’ 보고서에서 올해 교체 주기를 43개월로 예상하고 경기 회복 후에도 40개월 선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애플의 중고시장 성장도 악재 아닌 악재다. 서비스 매출에는 기여해도 기기 판매 매출에선 부정적인 요소다. 삼성증권은 지난 2분기 글로벌 아이폰 중고 시장을 약 1.3억대 수준으로 추정하고 이 중 6000만대가 3년 사이 추가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스마트폰 수요가 2년간 2억 대 줄어든 상황에서 이중 높은 비중은 중고시장으로 편입한 것이다.

프리미엄 시장의 또 다른 문제점은 수요가 일정 범위를 넘어서기 어렵다는 점도 있다. 프리미엄 모델에 대한 수요

는 등락이 심한데, 전체 출하량의 15~25% 수준에서 머문다. 많은 보고서가 500달러 이상 프리미엄 모델 시장에서 아이폰이 현재 75%를 상회한 점유율을 확보한 것으로 보지만 길어진 교체 주기와 중고 시장의 활성화 등을 고려하면 기기 매출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이날 애플은 아이폰15 시리즈를 공개하고도 뉴욕증시에서 장 내내 반등을 못한 채 1.71% 하락한 채 마감했다. 아이폰15 프로와 프로맥스 모델이 PC를 능가하는 기능을 보유했다는 평가도 있었으나 기기 구매를 유도할 만큼 혁신적인 기능과 요인은 없었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반등에 실패했다.

/김서현기자 seoh@



USB-C를 채택한 아이폰15 시리즈 /애플